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올해 추석 최적의 귀경 시간대(광주→서울 기준)를 14일 밤부터 15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당시 광주시 서구 윤암동 고속도로 진입로에 정체돼 있는 귀경 차량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귀성 13일 오전 6시~정오·귀경 14일 정오~오후 6시

# ‘고생 길’ 살짝 피해 가세요

‘더 이상 짊을 순 없다.’ 올해 추석연휴는 단 사흘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 지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성묘도 해야한다. 짧은 연휴기간 한꺼번에 쏟아지는 차량들은 주요 도로를 미비시킬 가능성이 크다. 연휴 대부분을 차 안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꼼꼼히 교통정보를 살펴, 쾌적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의 도움으로 올 추석 교통상황을 미리 알아보자.

**▲귀성 13일, 귀경 14일이 절정**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길은 13일 오전이, 귀경길은 1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 귀성은 최대 9시간10분이, 광주→서울 귀경은 8시간3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전국 6천800세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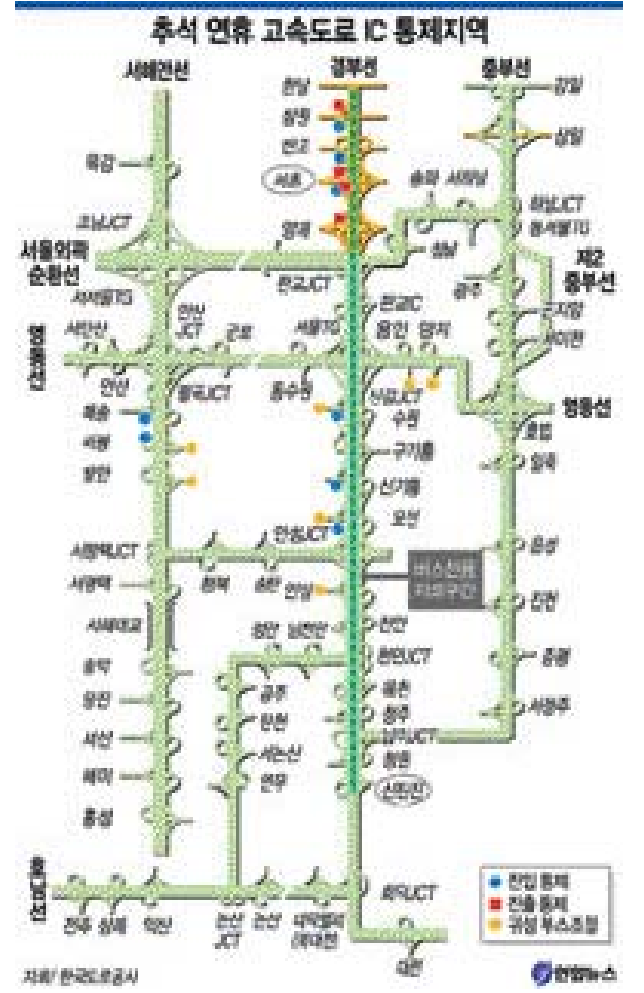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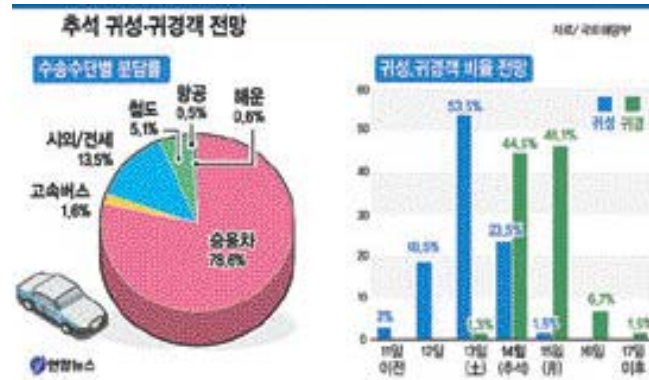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귀성길은 13일 오전 6시~낮 12시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9.9%, 귀경길은 14일 낮 12시~오후 6시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3.4%인 것으로 조사돼 이 시간대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호남지역 관내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272만대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이용차량 319만여대에 비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휴기간이 짧아 일평균으로는 19.1%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구간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귀성길의 경우 서울→광주는 9시간 10분, 서서울→목포는 8시간30분, 서울→전주는 7시간50분으로 예측했다.

귀경길은 광주→서울 8시간30분, 목포→서울은 8시5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보다 1~2시간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최적의 귀경 시간대**  
추석연휴 기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추석 당일인 14일 밤부터 15일 오전이 최적의 귀경 시간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공 호남본부가 연휴가 사흘이었던 최근 3년간 명절 연휴의 귀경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호남고속도로 광주→서울을 기준으로 14일 밤 9시부터 15일 오전 8시까지가 가장 좋은 귀경 시간대가 될 것으로 예측



했다.  
이 시간대에 귀경길에 올랐던 차량은 광주→서울까지 평균 4시간 가량이 걸려 가장 빨리 도착을 했고, 중간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귀경시간이 30분 가량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서울을 기준으로 14일 자정에 출발한 귀경객이 3시간20분만에 목적지에 도착해 가장 빨랐으며, 14일 밤 10시와 15일 오후 10시에 출발한 귀경객도 3시간30분이 걸렸다.  
반면 추석날인 14일 낮 12시에 출발한 귀경객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모두 7시간50분과 7시간40분이 걸려 최악의 정체를 경험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내에 귀 기울여야**  
한국도로공사와 이동통신업체 등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교통정보 안내와 무선인터넷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속도로교통정보 안내전화인 1588-2505은 음성, 문자 방식

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음성 교통정보는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출발 IC와 목적 IC를 말하면 주요 구간의 교통 상황을 알려준다.  
문자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발 IC와 도착 IC를 입력하거나 노선명 방향을 입력해 1588-2505로 전송하면 해당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준다.  
휴대전화로 '2504'를 누른 뒤 네이트, 메지엔, 이지아이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르면 도로공사 모바일 교통정보로 연결된다.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뒤 실시간 교통정보 코너에서 '\* \* 1333'을 누르고 다시 무선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르면 각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별도 부과)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와 교통정보포털사이트(www.roadplus.com)에서는 연휴 기간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휴게소 들를때 타이어 점검 필수

### 도로공사 공기압 점검소 운영

대규모 귀성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가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심찬섭)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휴게소에 타이어 공기압 점검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타이어 공기압 점검소는 정읍·백양사 휴게소 등 호남고속도로 14개

소를 비롯, 서해안선 13개, 88선 4개 등 호남 관내 휴게소와 영업소 46개소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 2천550건 가운데 6.5%(166건)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공 호남본부 관계자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장시간 운전할 경우 타이어가 파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고속도로에서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보다 5~10% 정도 공기를 더 주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역귀성·역귀경은 KTX 등 열차로

### 코레일 광주지사 임시열차 투입

코레일 광주지사는(지사장 백종찬) 오는 12일부터 닷새간을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임시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귀성객들이 불편함 없이 고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코레일 광주지사에 따르면 호남선과 경전선에 1일 84회의 정기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특별 수송기간에는 광주~용산간 KTX를 포함해 8개의 임시열차를 투입,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임시열차 운행과 더불어 고속도로 등이 정체돼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귀성객들을 줄이기 위해 KTX, 새마을호에 좌석과 입석을 병합한 승차권을 발매하고, 고객들이 열차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 역귀성, 역귀경 열차 이용객 중 40인 이상 단체로 KTX를 이용할 경우 30% 이상의 운임할인을 해준다. 문의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44-7788 또는 1588-7788로 하면 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십시오!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방음음향사) (062)227-9940

충장점(금남공원입)

(062)227-9970